

TV 2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코모닝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1~2부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아침경제 골든타임	50 인간극장		10 지역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이브의 사랑)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아침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어머님의 내머느리)
9 00 신문이야기 들쭉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인사이드	00 KBS 미래포럼 개막식	4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11 30 나는 몸신이다	20 별별가족 25 행복한 지도 55 바른말 고운말	00 월화 드라마 (별난 며느리)(재)	00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10 KBC 생활뉴스 30 세계문화탐방 지구촌특제
12 40 채널A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10 MBC 정오 뉴스 20 중계방송 국회인사청문회 정진엽 복지부장관 후보자	00 SBS12뉴스 50 닥터 365
1 50 뉴스특급	00 역사저널 그날(재) 50 별별가족(재)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시간을 달리는 TV(재)	10 MBC 정오 뉴스 40 특?특! 키즈클스 스페셜	00 KBC 열린토론회(재)
2	00 녹화중계 국회 인사청문회 정진엽 복지부장관 후보자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30 동물가족 체험기 외일드 패밀리(재)	00 내트위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3 00 직언직설	55 튜튼생활채널	05 후두스 읽어버린 숲 30 자동차부착성 위키	00 MBC 뉴스 10 타스의 풀이풀이 사자서어 40 문화사색	00 SBS 뉴스 10 중계방송 국회인사청문회 정진엽 복지부장관 후보자
4 30 레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TV유치원 30 별별가족 35 동물세계 55 1대100(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딱 너 같은 말)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5 4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라피		00 MBC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꿈의 라이브 프리시즌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10 생방송 '빛날'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10 닥터 지 바고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드라마 (오늘부터 사랑해)	15 일일연속극 (위대한 조강지처)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라부따 20 일일드라마 (돌아온 황금복)
8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25 가족을 지켜라	30 생생정보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MBC 일일특별기획 (딱 너 같은 말)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별난 며느리)	00 월화 특별기획 (화정)	00 월화드라마 (미세스 캅)
11 00 이제 만나러 갑니다	00 KBS 뉴스라인 40 TV. 책을 보다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어부의 반찬	15 힐링캠프 500인
12 40 통일준비 생활백서 질 살아보세(재)	20 세계를 바꾼 명장정 실록 홈즈 제2편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토크쇼 현장보고(재)	15 MBC 뉴스24 35 2015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하이라이트	35 나이트 라인

EBS 1

05:00 EBSe 생활 영어	09:35 이연 스페이스 정글	14:40 EIDF 2015 노인들의 계획	16:45 발명이 광광!
05:30 건강한 아침	09:40 토크쇼 부모 - 고수다	16:00 당동영 유치원(재)	16:55 생방송 토티! 보니하니
05:40 나의 성공비결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6:20 케니멀	19: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정미경의 일고 보면 쉬운 요리>	16:30 놀이터 구조대, 보잉	19:30 EBS뉴스
07:00 우당탕탕 아이쿠(재)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6:45 공리와 친구들(재)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07:15 곤(재)	11:10 문화유산 코리아	17:00 Why - 최고! 호기심딱지	20:40 다큐 오늘
07:30 출동! 슈퍼왕스(재)	<백제역사유적지구 하이라이트>	17:1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20:50 세계테마기행
0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인도네시아 화산섬 자바를 가다 1부 뜨거운 심장, 수라바야>	17:30 뽀롱뽀롱 뽀로로	<몽골, 바람이 전하는 이야기 1부 공룡의 땅을 거닐다, 네메그트>
08:00 당동영 유치원	12:00 EBS 정오 뉴스	18:00 생방송 토티! 보니하니	21:30 미리 보는 EIDF 2015
08:20 두다다콩(재)	12:10 EIDF 2015 50년의 콘서트	18:05 출동! 슈퍼왕스	21:40 EIDF 2015
08:35 Why - 최고! 호기심딱지	13:50 EIDF 2015 정 프랑수아의 넓은 세력	18:20 생방송 토티! 보니하니	스톡홀름의 좋은 날
08:50 공ძ과 친구들		18:25 내 친구 아서	23:20 EIDF 2015 몽테뉴와 함께 춤을
09:0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재)		16:40 생방송 토티! 보니하니	01:10 EIDF 2015 세상을 구한 남자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국어-알파개념>	13:05 수능특강 light <영어-독해>
00:50 " 고교 Basic Grammar-junior	14:00 2016 수능완성 <국어 B형>
01:40 " <문학-알파개념>	14:50 올림포스 <문학-알파개념(재)>
02:30 " <미적분>	15:40 " <미적분>(재)
03:20 " <수학 1>	16:30 " <수학 1>(재)
04:10 올림포스 평가문제 <미적분>	17:20 " 평가문제 <미적분>(재)
05:00 뉴턴스런 <물리>	18:10 2016 N제 <국어 A>
06:00 " <생명과학>	19:30 " <영어>
06:50 " <동아시아사>	20:00 EBS스타강사 특강 <국어A형>(재)
07:40 " <윤리와 사상>	20:50 인터넷 수능 <수학>
08:30 2016 수능개념 <윤리의 국어>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A형>
09:20 " <심주석의 수학>	21:50 " <문학A형>(재)
10:10 2016 수능완성 <영어>	22:3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11:00 " <수학>	23:10 인터넷수능 <영어독해연습-종합>
12:15 올림포스 <국어-알파개념>(재)	23:50 지식재능le

EBS플러스2

07:00 2015 공민증개사 시험대비강좌	15:20 만점왕 <국어 3-2>
07:30 경찰직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15:50 필독증 <국어 4-2>
08:00 인성적 및 직무능력검사	16:20 만점왕 <국어 5-2>
시험 대비 강좌	16:50 만점왕 <국어 6-2>
08:30 A 자격 시험대비 강좌	17:20 초등수학 개념잡기
09:00 출겨운 수학 EBS MATH	17:50 다큐 오늘
09:10 EBS TV 중학 <국어(1)(2)>	18:00 EBS TV 중학 <국어(5)(6)>
09:50 " <수학(1상)>	18:40 " <수학(3상)>
10:30 " <역사>	19:20 필독 중학 세계사
11:10 " <국어(3)(4)>	20:00 EBS 기획특강
11:50 " <수학(2상)>	20:50 EBS 기획시리즈
12:30 실천취업가이드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13:10 등업신공 <수학(1상)>	22:00 15일의 기적 <과학(3)>
13:50 " <과학(1상)>	22:40 등업신공 <수학(3상)>
14:30 " <수학(2상)>	23:20 필독 중학 <사회 1-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4일(음 7월 11일 壬申)

48년생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구도이다. 60년생 처음부터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적응하면서 점진적으로 고쳐 나가자. 72년생 단편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라. 84년생 국광의 재판을 뒤흔들 만한 충격이 있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4, 74	42년생 간단한 문제이니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 54년생 헛 이름만 나고 실상은 그만하지 못하다. 66년생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니 판단을 잘하라. 78년생 대응하지 않으면 후회가 막심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5, 79
49년생 한쪽에만 편중된다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61년생 예상이 정확하게 적용하여 해재를 부르겠다. 73년생 제반사란 원래 복잡할 때 짚는다. 85년생 어중간하여 상당히 애매할 것이 있다. 행운의 숫자 : 03, 51	43년생 연달아서 자주 나타날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55년생 대세에 흔들리지 말고 주권으로써 처리하라. 67년생 현재의 판시 세대로라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79년생 소모적이거나 무가치하다면 멀리하라. 행운의 숫자 : 27, 39
38년생 즉시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둬야 한다. 50년생 기반이 튼튼해야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62년생 한 가지 일에 열중한 나머지 다른 것을 놓칠 수 있다. 74년생 양호한 결과가 도출되겠다. 86년생 서둘러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2, 12	44년생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56년생 절대로 헛수고가 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 68년생 적극적으로 행해야 행운을 잡게 된다. 80년생 다양한 형태로써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다. 행운의 숫자 : 65, 90
39년생 치밀하게 관리하자. 51년생 처음에는 가벼운 정도로 시작해야 무리가 없다. 63년생 속도가 느려서 문제다. 75년생 이미 정해진 일이니 따를 수밖에 없다. 87년생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하자. 행운의 숫자 : 07, 57	45년생 상대의 숨은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급하다. 57년생 불합리함이 보인다면 개선하여야 옳다. 69년생 제자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빠르다. 81년생 의외의 마당에 임하면서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2, 47
40년생 쥐구멍에도 벌들 날이 있느니라. 52년생 빠짐없이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4년생 노력에 반례라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76년생 상대의 언행에는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0, 61	46년생 흥성의 기운이 아직 다 가지 않은 상태이다. 58년생 굳이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 70년생 전체의 판국을 예리하게 관찰할 수 있어야겠다. 82년생 수고를 덜어주려는 이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55, 66
41년생 앞과 뒤의 모습이 제각각일 수 있다. 53년생 모순에서 벗어나야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65년생 무지갯빛 희망이 현실화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다. 77년생 일정하면서 지속적으로 행해야 성과가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0, 43	47년생 혼선으로 인해 소모적인 현상을 빚는다. 59년생 내용을 잘 알고 담배들이야 실패가 없다. 71년생 밤심한다면 빈틈을 헤집고 들어오는 요인이 생긴다. 83년생 행국을 사로잡는 이제로 옮겨야 옳다. 행운의 숫자 : 87, 2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박희순

배우에서 연출가로

“갑 아닌 심부름꾼”



뮤지컬 '무한동력' 9월 4일부터 공연

“배우일 때는 저 하나만 잘하면 됐는데 연출은 하나하나 다 챙겨야 하니 더 힘이 듭니다. 개막 앞두고도 훨씬 긴장되는 것 같아요.”

‘맨발의 꿈’, ‘의뢰인’, ‘용의자’ 등에 출연한 배우 박희순(45)이 처음으로 연출에 도전한다. 그가 연출로 입문하는 작품은 다음달 4일 서울 대학로에서 개막하는 소극장 뮤지컬 ‘무한동력’이다.

인기 웹툰 작가인 주호민이 쓴 동명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이 뮤지컬은 무한동력기관을 만드는 괴짜 발명가의 하숙집에 머무는 청년들이 녹록지 않은 현실을 헤쳐나가는 과정을 코믹하면서도 유쾌하게 그린 작품이다.

공연이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1일 오후 서울 대학로의 한 연습실에서 연출뉴스와 만난 박 연출은 “배우일 때보다 더 불안하다. 무사히 공연을 마쳤으면 좋겠다”며 긴장이 역력한 모습을 보였다.

1990년 데뷔해 이미 연기경력이 25년에 이르는 베테랑 배우지만 연출로서는 대중 앞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작품이어서다.

그는 “내가 무대에 서는 거면 하나만 잘하면 되는데 연출은 모든 사람을 다 챙겨야 한다. 연출하면 권력을 휘두를 줄 알았는데 심부름꾼이더라. 업무량과 부담감이 엄청나다”고 말했다.

그의 연출 데뷔 소식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는 극단 ‘목화’에서 12년을 보낸 연극인 출신이다.

그는 극단시절 배우와 스태프 역할을 겸했다면서 연출가는 연출을 하고 싶은 꿈을 품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 연출은 “다만 연기에 집중하기 위해 그 꿈을 뒤로 미뤘다”고 말했다.

“내 캐릭터에 빠지지 못하고 자주 전체적으로 바라보려 하니 연기자로서는 손해 보는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입지를 다진 다음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연출을 하게 된 겁니다.”

2년 전 이 작품의 노래와 가사를 만든 이지혜 음악감독의 콘서트에 초대받은 것이 계기가 됐다. 그는 콘서트에서 이 음악감독이

독이 웹툰 ‘무한동력’을 토대로 만든 10여곡을 듣고 뮤지컬로 만들면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큰 기대 없이 갔는데 음악이 재미있었어요. 좋은 음악은 많지만 재미있는 음악은 드물잖아요. 그래서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때까지 이지혜 감독이 연출을 해보지 않았느냐고 제안하더라고요.”

연출은 힘든 작업이지만 “뭔가 막혀 있던 배우가 내 도움을 받아 깨우치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발전한 모습을 보면 울컥하며 감동까지 느껴진다. 그게 연출만이 느끼는 보람이 아닐까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작품으로 ‘꿈’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자신이 언젠가 연출을 하고 싶다는 꿈을 끈 것처럼 관객들도 공연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지금 무슨 꿈을 꾸는지를 질문했으면 한다는 것이다.

“난 꿈이 뭐였지, 난 그 꿈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나... 관객들이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관객들은 조만간 ‘연출 박희순’과 ‘배우 박희순’을 둘 다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는 최근 제주도에서 영화 ‘올레’의 촬영을 끝마쳤다. 더 이상 내일이 기다려지지 않고, 1년 뒤가 지금과 다르리라는 기대가 사라진 세 친구가 제주도로 떠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로, 신하균, 오만석이 함께 출연한다.

공연 일정 9월 4일~2016년 1월 3일. 장소 대학로 티오엔(TOM) 1관. 티켓가격 5만~6만원.



씨스타 '셰이크 잇' 6주간 '톱 5' 최고성적

AOA는 신인 걸그룹 대세로 떠올라

소녀시대·원더걸스 등 컴백 시선 집중

이어지진 못했다. 당일 밤 홍보 차 출연한 아프리카TV에서 일부 멤버의 ‘태도 논란’으로 역풍을 맞으며 음원 상승세에 약제가 됐다라는 평이다.

걸스데이와 22시간의 차이를 두고 같은 날 발매 앨범을 낸 소녀시대는 8인조로 재편돼 1년 반 만에 컴백하며 시선이 집중됐다. 그러나 큰 관심에 비해 ‘파티’는 주간차트 3위에 1회, 5위에 1회 올라 체면치레를 하는데 그쳤다.

소녀시대는 이어 지난 18일 정규 5집 ‘라이언 하트’를 발표해 당일 실시간차트 1위를 했는데 아직 주간차트는 집계되지 않은 상황. 이 또한 앨범 ‘쇼미더머니 4’의 음원과 SG워너비의 신곡이 강세란 점에서 장기 흥행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7월 16일 신곡 ‘리멤버’를 낸 에이핑크는 주간차트 5위에 2회 올라 역시 이름값을 했다.

지난해 ‘미스터 추’와 ‘노노노’, ‘러브’의 히트에 이어 사랑받았지만 다른 걸그룹에 비해 화제 물의를 하진 못했다. 걸그룹 대전의 사실상 마지막을 장식한 원더걸스는 3년 만에 컴백, 멤버 재편, 밴드 변신 등으로 컴백 전부터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이달 3일 발표한 레트로 풍의 ‘아이 필 유’는 주간차트 1위에 1회 올랐지만 상위권에 오래 머물렀고, 화제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걸밴드 변신이라는 대대적인 홍보에 비해 멤버들이 악기 연주보다는 춤에 치중한 모습을 보인 점은 아쉽다.

그러나 걸그룹 대전은 걸그룹끼리의 경쟁을 넘어 여러 난관도 있었다. 일부 걸그룹이 기대에 못 미친 데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매일 신곡을 낸 빅뱅의 차트 장악, MBC TV ‘무한도전’ 영동고속도로 가요제에 출연한 혁오의 돌풍, ‘쇼미더머니 4’ 음원의 인기 등 여러 요인이 있었다. /연합뉴스

씨스타 ‘셰이크 잇’ 6주간 ‘톱 5’ 최고성적  
AOA는 신인 걸그룹 대세로 떠올라  
소녀시대·원더걸스 등 컴백 시선 집중

올여름 가요계의 키워드는 걸그룹이었다. 지난 6월 씨스타를 시작으로 이달 원더걸스까지 인기 걸그룹들이 대거 컴백하면서 2개월간 차트에서 경쟁하며 여름을 뜨겁게 달궜다.

주요 걸그룹을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최대 음원사이트 멜론에서 주간차트 ‘톱 5’에 든 횟수를 분석한 결과 씨스타의 ‘셰이크 잇’(Shake it)이 총 6주간 ‘톱 5’에 들며 최고의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6월 22일 공개된 ‘셰이크 잇’은 주간차트 1위에 3회, 2위에 1회, 4위에 2회 올라 6주간 인기를 얻으며 여름을 관통했다.

그 사이 ‘음원 최강자’ 빅뱅의 차트 독식, 신인 밴드 혁오의 역습 등이 있었지만 팬덤보다는 대중의 호응에 기대며 “여름은 씨스타의 것이라ں 해기를 막고 싶다”던 멤버들의 목표를 이뤘다.

같은 날 신곡 ‘심쿵해’를 낸 AOA는 씨스타와의 ‘맞불’로 화제가 되며 걸그룹 대전 효과를 톡톡히 본 것이다.

‘심쿵해’는 주간차트 3위에 2회 오르며 이들은 ‘상승세를 타는 신인급 걸그룹’에서 ‘대세’로 떠올랐다. 멤버 지민이 엠넷 여성 래퍼 서바이벌 ‘엔프리트 랩스타’, 설현이 드라마, 초야가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음원의 인기에도 호재로 작용했다.

7월에는 걸스데이, 소녀시대, 에이핑크가 차례로 등판했다. 걸스데이는 7월 7일 ‘리멤버’를 공개해 주간차트 4위에 1회 오르는데 그쳐 지난해 히트곡 ‘섬섬’과 ‘달링’ 때의 상승세를